전어값 폭락… 양식어가 울상

양식물량 대거 출하 … 9월이후 급락세
“전어철 지났다” 잘못 알려져 수요 급감

전어 가격이 폭락해 양식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9월중순까지 kg당 1만2천원선에 판매됐던 전어는 추석 이후 양식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서 가격이 폭락했으며 수요 급감으로 최근에는 소규모 판매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어가격이 폭락한데는 자연산 전어어획이 늘어난데다 전국적으로 양식면적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양지방수산청과 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어양식면적은 지난해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충남과 강화군의 경우 최고 1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의 경우 지난해 20ha에서 75ha로 급증, 현재 500t에 달하는 양식전어가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남 동부지역 역시 순천 별량 해역을 중심으로 54ha에서 6천200만마리의 전어가 양식되고 있으나 전혀 출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온이 10도이하로 내려갈 경우 폐사 우려가 높아 앞으로 2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양식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어양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양식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격 폭락을 불러왔다”며 “게다가 양식전어는 지금이 가장 맛있는 시기인데도 소비자들이 전어철이 지난 것으로 잘못 알면서 판매도 부진, 이중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양식어민들은 소비촉진활동을 벌이거나 수매에 나서는 등 대책을 세워줄 것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지방종합

동해 예방 비닐씌우기 해남군 해남읍 학동리 일대 마늘재배 농민들이 겨울철 동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닐씌우기에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항생제 안쓴 돌돔 30만마리
여수 양식어장 국내 첫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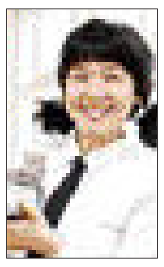
국내 처음으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양식 어류가 출하됐다.

지난달 31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와 화정면 낭도, 돌산읍 군내리 등 3곳의 무항생제 시범어장에서 자란 돌돔 30만 마리가 판매됐다. 이날 출하된 돌돔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지난 4월 3곳의 무항생제 시범어장에 입식한 뒤 항생제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키운 것.

여수해양청은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투입하고 매월 수질과 질병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이들 양식장을 인근 어장과 멀리 떨어져 진 곳에 설치,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했다.

해양청은 무항생제 어류 생산에 그치지 않고 일반어류와 차별화된 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수시내 거점 상권지역에 무항생제 시범횟집 3개소을 지정, 이날부터 판매토록 했다. 특히 무항생제 어류 홍보를 위해 가격은 일반 돌돔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보성꿈나무’ 예체능 분야 두각
국제청소년영화제 감독상 수상 오민지 양 등



오민지양

김덕현씨

한규철씨

보성의 꿈나무들이 예체능 분야에서 잇따라 뛰어난 실력을 발휘,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보성고 3학년 오민지(18) 양이 서울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고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데 이어 최근 제 87회 전국체전에서 보성 출신 김덕현(21·조선대) 선수가 세단멀리뛰기 한국 신기록을 수립, 전국체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

김덕현 선수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16m66이었던 세단뛰기 국내 공식 기록을 깨고 17m07이라는 한국 신기록을 수립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도하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수상의 가능성을 높였다.

벌교 장좌리가 고향인 김 선수는 삼광중학교 시절부터 멀리뛰기, 세단뛰기 등에서 타고난 발목 힘과 점프력으로 빼어난 실력을 보여왔으며, 앞으로 한국 육상계의 기대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이번 전국체전 수영에서 보성군 소속 한규철 선수가 개인 혼영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2관왕으로 차지했으며, 김지윤 선수도 유도 2관왕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상을 보였다.

이에 앞서 ‘한국의 스필버그’가 꿈인 오민지 양은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제10회 토론토 릴 아시안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논·밭두렁 볏짚 태우면 과태료 부과
강진군 조례 제정 의회 상정

산림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이나 볏짚 등을 태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군은 산불 예방과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산림과 인접한 토지에서의 소각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의회에 상정한다.

군이 소각금지 조례까지 만든 것은 매년 논두렁 등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붙어 일어난 산불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영암 생활쓰레기 매립장 포화
처리 시설확충 급하다

영암군내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여서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영암군은 “삼호읍과 신북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더 이상 매립이 어렵고 소각시설 3곳도 처리 용량이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다 가동이 자주 중단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 대란을 막기위해 현대식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군은 70억 원을 들여 삼호읍 대불산단내 폐기물처리장 부지 19만50㎡ 중 2만3천㎡에 1단계로 10년간 매립이 가능한 ‘대불산단 매립장’과 군서면에 1일 30t의 쓰레기를 소각 할 수 있는 소각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

군은 늦어도 올해 안에 이 시설을 착공, 내년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장성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준공
삼계면 사창리… 유통체계 개선·물류비용 획기적 절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지난달 31일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준공됐다. 〈사진〉

국비 등 6억 4천여 만원이 투자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320평 규모로 농산물의 집하선별과 저온저장·냉장수송 등 하루 15~20톤에 달하는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

유통센터 준공으로 농산물 유통체계가 개선돼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내년에는 이 시설에 7억6천3백만원이 추가 투입돼 산지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장성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